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사회윤리

1. 아우구스티누스, 현실주의자인가?
2. 아우구스티누스, 공동체주의자인가?
3.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덕공동체로서의 교회

III. 나오는 말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남서울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ABSTRACT •

Augustine, Christian Realist? or Christian Communitarianist?

Moon, Si-Young

There are so many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on Augustine's social ethics. For example, Reinhold Niebuhr regards Augustine as the first source of Christian Realism. Instead of Niebuhrian view, Stanley Hauerwas regards Augustine as the Christian Communitarianist.

More interestingly, Max L. Stackhouse considers himself as the heir of Niebuhr. He emphasizes the public faith through accepting Niebuhrian view of Augustine. The Christian ethics of Niebuhr and Stackhouse maybe belong to libertarianism. On the other hand, Hauerwas thinks Augustine's ethics as the model of Christian Communitarianism. Hauerwas says that the most important task of Christian ethics is to enhance of gospel identity of church, in short, 'being church'. In other words, Stackhouse and Hauerwas are different from their perspectives for Augustine's social ethics.

But this paper's focus is not the differences but the possibilities of mutual supplementation between Niebuhr-Stackhouse and Hauerw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is interpretation on Augustine's ethics is the relations between *civitas terrena* and *civitas Dei*. Niebuhr and Stackhouse consider that the task of church as *civitas Dei* is to realize the values of it in *civitas terrena*. But, Hauerwas emphasizes the gospel identity of church as *civitas Dei* in itself.

This paper's proposal is not seeking the third way between Niebuhr-Stackhouse and Hauerwas. Choosing either Niebuhr-Stackhouse or Hauerwas is no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ritical and main focus is seeking the possibility of dialogue or the necessity of taking both view of Niebuhr-Stackhouse and ethics of Hauerwas for church's moral reformation in Korea.

Key words: Christian Realism, Christian Communitarianism, public theology, ecclesial ethics, Libertarian-Communitarian debate, Reinhold Niebuhr, Max L. Stackhouse, Stanley Hauerwas

I. 들어가는 말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현실주의자였는가? 혹은 기독교공동체주의자였는가?¹⁾ 이 질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라틴고전에 관한 해석 문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대기독교윤리학을 위한 예비질문이다. 혹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해석을 고전학에 위탁하기보다 기독교윤리학의 문제의식들을 통해 재해석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니버, 스택하우스, 그리고 하우어워스의 윤리학적 관심을 반영한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을 시도하는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를 두고 현대기독교사회윤리학의 중요한 두 관점이 엇갈리고 있다. 기독교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를 대표하는 라인홀드 니버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독교현실주의의 연원으로 해석한다. 니버의 관점에 비판적인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현실주의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독교공동체주의(Christian Communitarianism)에 속하는 고전이라고 해석한다.

흥미로운 것은, 하우어워스의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는 스택하우스가 니버의 계승자를 자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자유주의 윤리를 공유한다면, 하우어워스의 공동체주의 윤리와 논변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셈이다.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신학 버전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니버-스택하우스의 관점과 하우어워스의 윤리 사이의 상보성의

1) 이 질문은 기독교현실주의와 기독교공동체주의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각각의 사상적 연원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지만, 두 관점 사이의 비교보다 '상보가능성' 내지는 '양립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단초를 찾고자 하는 시론적 모색이다.

II.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 아우구스티누스와 사회윤리

1. 아우구스티누스, 현실주의자인가?²⁾

라인홀드 니버의 이름은 기독교사회윤리와 함께 한다. 그의 탁견, 즉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와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게 하고 개인윤리를 넘어서 사회적 혹은 정치적 방법에 의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뜨게 해 준 점에서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니버가 자신의 사상적 연원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니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현실주의를 제시한 고전이라고 생각했던 셈이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했던 것일까?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 개인들은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 보다 우선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 있으나 인간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보다 더 많은 이기심이 나타난다는 점을 역설한다.³⁾ 이러한 근거에서, 니버는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무시하고 맹목적 이상과 사랑을 주장하는 감상주의를 배격하면서 사회 및 정치적 요소들 모두가 자아중심성과 힘(혹은 권력, power)이라는 요소에 의

2) 이 부분은 문시영, '사회윤리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니버적 접근', 『기독교사회윤리』 1집(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1999)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3)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8.

해 지배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기독교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를 기독교사회윤리의 기초로 삼았다.⁴⁾ 기독교현실주의가 니버의 사회윤리를 구성하는 주요한 근간이 된다는 뜻이다.

기독교현실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살펴볼 것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니버적 접근’(Augustine-Niebuhrian Approach)이 그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윤리 고유의 특징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인간이해에서 원죄(original sin)에 관한 바울-아우구스티누스-니버적 장르(Pauline-Augustinian-Niebuhrian genre)에 속한다고 하겠다.⁵⁾

실제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에 영향을 준 여러 사상가들 중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은 결코 생략될 수 없다.⁶⁾ 니버는 자신의 사상적 연원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소급했다.⁷⁾ 그것은 정치적 현실주의와는 다른 길이며 고전철학자들의 현실주의와도 다르다. 사회현실에 내재한 사리사욕과 권력의 문제에 관심하는 니버의 현실주의는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것으로서,⁸⁾ 기독교현실주의는 아가페 사랑을 감상적으로 적용하려는 유토피아적 관점의 극복인 동시에 아가페 사랑이란 도무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냉소주의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4) Reinhold Niebuhr, “Augustine’s Political Realism” in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3), 119-146.

5) Edward L. Long, Jr., *A Survey of Recent Christian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186.

6) 사상사적으로, 니버의 사회윤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하여 루터, 그리고 마르크스 등 여러 사상들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니버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각각의 요소 중 어느 하나에 경도되지 아니하고 그 이론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물이 기독교사회윤리인 셈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아우구스티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

7) Michael J. Smith,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Baton Rouge and London: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6), 18.

8) 고병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910.

니버의 현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발견한 종교적 기초에 따른 것으로서,⁹⁾ 정치적 의미의 현실주의와는 구분되는 기독교현실주의에 집중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니버의 관심은, 『기독교 현실주의와 정치문제』(*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제9장에 표제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적 현실주의”(Augustine’s Political Realism)라고 정할 만큼 지대했다.

니버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역사상 처음 등장한 위대한 현실주의자였다. 니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사회적 분파성, 긴장, 그리고 알력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¹⁰⁾

이러한 배경에서 전개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는 기독교신앙이 추구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적 현실 사이의 변증법적 통일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초월적인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그 영원한 것을 역사적 현실 속에서 상대적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실현하려는 신학적 입장을 말한다.¹¹⁾ 니버의 불가능한 가능성(*the impossible possibility*), 정의의 근사적 실현(*all approximations of justice*)의 개념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특히 니버의 현실주의는 인간에 관한 두 개념에 주목한다. 인간이란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간개념은 집단 및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집단의 자만심(*group pride*)과 힘에의 의지(*will-to-power*)를 설명하는 근거이며 사회정의에 대한 근사치적 접근의

9) Donald Meyer, *The Protestant Search for Political Realism 1919-1941*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2nd ed. 1988), 237.

10) Reinhold Niebuhr, "Augustine's Political Realism", 120.

11) 고범서, 『사회윤리학』(도서출판 나남, 1993), 224.

필요성을 설명할 단초이다. 니버가 보기에,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의 경쟁 속에 놓여있다. 자기희생이란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불가능한 가능성’ 정도가 가능할 뿐이다.¹²⁾

니버의 관점에서,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성과 함께 자기초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특히 인간의 초월의 능력은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다. 인간의 자유는 창조적 미래와 파괴적 종말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중적 능력은 모두 근원이 동일하다. 니버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죄의 원인으로 간주했던 교만(*superbia*)의 개념을 ‘자아중심성’(ego-centricity)이라고 재해석하면서,¹³⁾ 집단이기주의 및 사회적 알력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보면,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가 표방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답습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니버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칭송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니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전적 시대상을 반영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성에 과도하게 치중해 버린 나머지, 지상의 도성이라는 현실을 변혁시킬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¹⁴⁾

니버는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Man's Nature and His Communities*)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 및 그 전통을 잇는 루터의 관점을 다소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니버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론과 루터의 두 정부론과 그 현실주의적 사유가 인간의 본성 또는 공동체의 진실

12) Cynthia D. Moe-Lobeda, *Public Church: For the Life of the World*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4), 7.

13) Reinhold Niebuhr, "Augustine's Political Realism", 125.

14) 같은 책, 128.

을 묘사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고 더구나 현대사회의 민주정치제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¹⁵⁾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니버의 해석에 양면성이 있는 셈이다. 우선, 니버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은 그의 사회윤리구상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동시에, 아우구스티누스-니버적 접근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고전적 거장의 이름에 기대어 학문하려는 단일한 타성 내지는 고전의 답습을 넘어 창의적 시도가 담겨있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니버의 계승자를 자임하는 현대기독교윤리학자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관심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를 따르고 있다.¹⁶⁾ 이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스택하우스의 관심이 니버에 못지않은 형태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스택하우스를 기독교현실주의자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¹⁷⁾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스택하우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스택하우스는 하나님의 도성 개념에 주목하고 도시의 에토스(urban ethos)에 관심한다. 『윤리와 도시 에토스』(*Ethics and the Urban Ethos*)에서 스택하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

15) Michael J. Smith,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127.

16) Deridre King Hainsworth and Scott R. Paeth, 'Introduction', Deridre King Hainsworth and Scott R. Paeth eds.,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10) x iv~x v.

17) 필자는 스택하우스를 니버와 연관 짓기보다 니버를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과 연관지어, '자유주의 윤리'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하우어워스의 '공동체주의 윤리'와 카운터파트너 관계로 상정하고자 했다. (니버와 스택하우스를 묶어 하우어워스와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세 가지 해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다만, 필자로서는 하우어워스와 니버 사이, 하우어워스와 스택하우스 사이에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에 견해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의 도성(civitas) 개념에 빗대어 자신이 도시(city) 개념을 설명한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도시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가진 도시적 신학자(urban theologian)로 해석하고, 인간의 정치-경제적 구조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해준 신학자로 이해한 셈이다.¹⁸⁾

이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를 굳이 찾아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도성(都城, civitas) 개념이 성경에서 왔다고 말한 부분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겠다.¹⁹⁾ 이 단어는 도시국가 혹은 공동체에 가깝다. 현대적 도시의 이미지와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스택하우스가 이러한 요소를 몰랐을 리 없다. 스택하우스가 주목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도성 개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두 영역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도성이 지닌 특징들을 비평하고 식별해주는 용어라는 점이었다.²⁰⁾

스택하우스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도성 개념이 영적 가치를 함의한다는 점이다. 굳이 도성 개념을 사용한 것은 영적 요소가 물질적 요소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상 권력과 문화가 세상의 제도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교회'의 지도하에 있어야 함을 암시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하나님의 도성이 지닌 보편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이방인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성은 우주적인 도성으로서, 오늘날의 글로벌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서, 스택하우스가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아우구스티

18) Max L. Stackhouse, *Ethics and the Urban Ethos: An Essay in Social Theory and Theological Reconstruction* (Boston: Beacon Press, 1972), 88.

19)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구는 시편87:3이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20) Max L. Stackhouse, *Ethics and the Urban Ethos*, 130.

누스의 우주적 혹은 보편적 비전은 내재적인 것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택하우스가 예를 들어, ‘세계산업노동자 조합’(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의 비전을 현대인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적 기획의 하나라고 이해하는 관점을 굳이 인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¹⁾ 기업윤리에 관한 스택하우스의 설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도성 개념의 함의를 설명해준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기업가와 그들의 전문가들이 사회현실에 대한 해석에서 두 가지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사실에 기초한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본성에 관한 심층적 전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공동체적 본성과 영성과 도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이러한 주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해석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서, 오늘날 기업윤리의 근간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²²⁾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온 세상과 역사를 향한 섭리의 맥락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우주와 역사 및 창조주를 어떤 관점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해석인 셈이다.²³⁾

남은 문제는 이것이다. 니버와 스택하우스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을 유사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가? 스택하우스가 니버의 기독교사회윤리의 계승자를 자임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아우구

21)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Empire*, 207. 이 문장은 Max L. Stackhouse, *God and Globalization, Vol. 4 :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글로벌 시대의 공공신학』(북코리아, 2013), 50.에서 재인용하였다.

22) Max L. Stackhouse, ‘Introduction: Foundation and Purposes’ in Max L. Stackhouse, Dennis P. McCann, and Shirley J. Roels, with Preston N. Williams, ed., *On Moral Buisi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30.

23) 같은 책, 30.

스티누스에 대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적 해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니버적 해석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남은 선택지는 이것이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니버적 단초를 유지하면서 스택하우스 자신의 관심을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를 재해석한 것이라는 관점 말이다.

2. 아우구스티누스, 공동체주의자인가?²⁴⁾

니버와 스택하우스의 연관성을 주목하는 데에는 일정한 의도가 작용한다. 기독교공동체주의(Christian communitarianism)를 표방하는 하우어워스가 기독교현실주의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를 해석했던 니버의 관점에 제기했다는 점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하우어워스가 기독교 덕 윤리를 다룰 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주목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덕 윤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공동체주의 윤리의 사상적 연원으로 상정하려는 취지였다.

사실, 하우어워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다소간 의외의 일로 여겨질 수 있다. 굳이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현대의 사상가들로부터 충분한 전거를 가지고 있다. 하우어워스가 맥킨타이어와 요더(John H. Yoder)를 자신에게 영향을 준 두 거장으로 언급했을 정도로 그들 사이의 교분은 두텁다.²⁵⁾ 특히, 현대적 의미의 덕 윤리 혹은 덕 윤리의 재론을 이끌고 있는 맥킨타이어의 철학적 문제의

24) 이 부분은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북코리아, 2014)의 3장 일부를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대해서는 『교회됨의 윤리』(북코리아, 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25)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 A Theological Memoir* (Grand Rapids: Wm. B. Eersmans, 2010), 160.

식에 가장 가까운 신학적 논변을 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우어워스는 맥킨타이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를 신학적으로 수용하여 기독교공동체주의를 표방한다.²⁶⁾

이러한 배경에서, 하우어워스 자신이 요약한 것처럼, 그의 윤리적 강조점은 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덕의 중요성과 그 회복의 강조, ② 예수 내려티브를 통한 윤리의 설명 및 강조, ③ 복음에 충실한 덕스러운 성품의 육성하는 교회공동체에 대한 강조, ④ 현실정치참여보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시민사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⑤ 십자가 정신에 대한 강조 및 비폭력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²⁷⁾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는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라는 별칭이 붙어 있으며, 교회의 콘스탄틴 결탁 혹은 동화에 강한 경계심을 보인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이제까지 세속정치에 참여하려던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교회의 정체성 혹은 책무를 망각해 왔다. 또한,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하고 사회를 선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교회의 교회됨을 소홀히 했던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교회의 으뜸가는 책무는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the first task of the church is to be itself)이라고 했던 하우어워스의 명제는 그의 문제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²⁸⁾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우어워스의 윤리관이 내용상으로 니버적 관점에 대한 간접적 거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우어워스가 상대한 라이벌이 결국은 니버가 아니라, 니버의 영향을 받았고 니버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였다

26)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

27) Stanley Hauerwas, *A Cross Shattered Church : Reclaiming the Theological Heart of Preaching*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145.

28)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6), 100.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니버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간접적 거부는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에서 잘 드러난다. 하우어워스는 호주에 초청을 받아 강연했던 내용들을 묶어 단행본으로 출판한 『기독교제국의 상실?』(*After Christendom?*)에서 그 흔적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우어워스 자신은 말한 것처럼, 이 책은 훗날 윌리몬(William H. Willimon)과 공저한 『나그네 된 거류민』(*Resident Aliens*)의 신학적 배경을 심화시키는 좋은 기회였다.²⁹⁾

주목할 것은, 『기독교제국의 상실?』에서, 하우어워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바른 해석을 촉구했다는 점이다.³⁰⁾ 일반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콘스탄틴적 기독교 발전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우어워스가 보기에는 오히려 콘스탄틴적 교회관의 대항자이며 대안을 제시한 거장이다. 특히 콘스탄틴 결탁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키고 덕의 공동체로 회복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어떤 이들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에 나타난 교회의 지배를 말해준 선구자로,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중세적 교회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적 거부의 시조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우어워스는 자신이 후자 계열에 속한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누구보다도 니버의 현실주의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니버를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친 인물로 격하시킨다. 니버의 해석은 교회가 지닌 공동체적 정체성을 간과해 버렸다는 관점이 하우어워스의 주된 비판이다. 하우어워스가 보기엔, 니버의 실수

29)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 A Theological Memoir*, 225.

30) 책 제목 번역을 『기독교제국 이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우어워스의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목 끝에 '물음표(?)'를 붙인 것은 답을 찾기 어려운 우리시대 정황의 반영이라는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물음표를 붙여야만 하는 난처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 문제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한 가이드가 되어 주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는 셈이다.

는 교회를 진정한 정치공동체로 생각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요점을 놓친 데 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욕구의 갈등에 대한 대처법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의 질서를 강조하고 교회를 통해 질서 있는 사랑의 덕을 훈련받아야 함을 강조했던 점을 놓친 것은 니버의 중대한 실수라는 것이 하우어워스의 논점이다.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현실주의자라기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콘스탄틴적 교회의 비전이 좌절되는 경우 즉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생각이 좌절되는 경우,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해주었다.³¹⁾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해석은 사회의 변혁을 위한 윤리 즉 현실주의적이고 공공신학적인 관점보다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내용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기독교제국’(Christendom), ‘콘스탄틴적 결탁’(accommodation) 등의 개념들은 맥킨타이어의 관점에 대한 찬성이자 니버의 관점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다.

이것은 하우어워스의 현대교회에 대한 인식, 즉 교회가 세상에 대한 ‘순응전략’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³²⁾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통해 로마에 저항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콘스탄틴의 기독교공인 이후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기복을 떠안아 세속권력을 통해 왕국을 이어가려는 ‘유혹’을 받았다. 하우어워스의 해석에 따르면, 교회가 순교와 복음이 증인되는 결정적 가치를 상실한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31)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39.

32) 같은 책, 10.

예를 들어, 『신국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를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던 점에 주목하라고 한다. 하우어워스는 이것이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거대제국 로마의 거대기획에 가담하기보다 교회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던 증거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국론』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가치와 기독교적 덕 윤리에 중요한 통찰을 준 선구자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예로, 『기독교윤리 길잡이』(*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를 통해 ‘예배를 통한 기독교윤리’를 탐구하면서,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 초대교회 이후 교부시대 기독교윤리의 중요한 길잡이였다고 평가한다. 『신국론』에 나타난 강조점들에 주목하면서 기독교윤리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차지하는 의의를 요약한 것은 하우어워스의 해석을 대변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³³⁾

이처럼,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신의 공동체주의 윤리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기독교적 근거로 삼는다. 하우어워스가 신실한 교회 이고자 한다면, 낯선 혹은 다른 (foreign or alien) 근거들 위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영향일 듯싶다.³⁴⁾ 아우구스티누스를 이 세상에서 교회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윤리학자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³⁵⁾ 교회가 잠정적으로 지상의 도성에

33) Stanley Hauerwas and Samuel Wells,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6), 44. ①그리스도인은 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②모든 덕은 사랑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즉 카리타스(caritas)이어야 한다는 것, ③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삼아주신 것이라는 점, ④사랑의 질서가 필요하며 사회의 질서 역시 여기에서 연유한다는 것, ⑤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결코 권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⑥많은 결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진정한 정치공동체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34)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18.

속하지만, 동시에 또한 궁극적으로는 더 위대한 정치 즉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다는 역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다.

하우어워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밀뱅크(John Milbank)에 대한 논의에서,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놓친 것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밀뱅크(John Milbank)의 『신학과 사회이론』(*Theology & Social Theory*)에서 『신국론』에 대한 역-내러티브적 읽기(counter-narrative reading)를 제안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의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³⁶⁾ 하지만, 하우어워스는 밀뱅크의 관점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간과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한다. 비폭력 혹은 평화가 존재론적 우선성을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³⁷⁾ 아마도 비폭력 평화를 교회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하우어워스의 입장에서는 못내 아쉬운 부분이었을 듯싶다.

어쨌든, 하우어워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목했다는 점은 의외의 현상인 동시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단지 신학전통을 개괄하는 과정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하우어워스 자신의 고유한 문제의식에 관한 사상적 연원으로 상징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여기에는 맥킨타이어가 덕 윤리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주목했던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덕 윤리가 표방하는 공동체주의에 관한 기독교적 연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하우어워스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은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재

35) 같은 책, 39.

36) John Milbank, *Theology & Social Theor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nd ed. 2006), 392. 여기에 사용된 ‘역-내러티브’라는 표현은 밀뱅크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의 핵심요소이다. 로마의 내러티브에 대항하려는 의도 혹은 기독교의 내러티브를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일 듯싶다.

37)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171. *이 부분은 책의 본문에 속한 글은 아니다. 하우어워스가 각주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에서 인용했다.

조명했던 스택하우스의 관심에 못지않은 의의를 지닌다.

3.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덕공동체로서의 교회³⁸⁾

니버, 스택하우스, 그리고 하우어워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 것은 맞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질적으로, 니버, 스택하우스, 그리고 하우어워스가 각자의 현대적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를 누구 편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론'(試論)이다.³⁹⁾

하나의 시론으로서, 이 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에 관한 현대 기독교윤리학자들의 해석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재구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스택하우스의 관심이 명시적으로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더구나, 스택하우스가 니버 이외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비롯한 여러 사상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굳이 니버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과 하우어워스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 사이

38) 필자가 공공성과 정체성의 상보가능성 혹은 양립가능성을 말하기 위한 근거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글의 전체 구도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을 고전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기독교윤리학 나름의 해석 또한 필요하다는 뜻이다. 니버, 스택하우스, 그리고 하우어워스의 윤리학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었던 셈이다. 다만, 필자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39) 영미신학자들 중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대화가능성 혹은 공공신학과 교회윤리 사이의 상보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생각할 때, 교회의 공공성과 정체성에 관한 상보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는 충분히 보인다.

에 스택하우스를 개입시키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다. 아우구스틴누스 해석에 관한 ‘니버 vs. 하우어워스’의 논의를 ‘스택하우스 vs. 하우어워스’의 논의로 전환시킬 단초를 찾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재구성의 단초와 가능성은 하우어워스가 스택하우스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하우어워스가 스택하우스의 윤리를 보편주의 윤리로 규정하고 여기에 계몽주의에서 유래하는 자유주의적 유산이 내재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⁰⁾ 하우어워스가 스택하우스의 관점을 자유주의 윤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든 뜻이 되겠다. 만일, 이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면, 스택하우스의 관점을 자유주의 윤리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하우어워스의 공동체주의와 대척점을 이룬다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대영미철학자들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관점에서 살펴볼 최소한의 여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 부분에서, ‘니버-스택하우스 vs. 하우어워스’의 구도를 역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초가 되는 대목이 여전히 발견된다. 스택하우스가 니버의 유산을 이어받아 ‘글로벌 시대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계승되면서, 그 바탕에 공동체주의와 카운터파트가 되는 자유주의적 유산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스택하우스 자신이 기독교신학에 자유주의가 준 유산이 내재해 있으며 철학과 사회학 등의 파트너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40) Stanley Hauerwas, 'Freedom of Religion: A Subtle Temptation', 333. 김현수, '자유주의자 vs. 분파주의자 - 공공신학자 막스 스택하우스와 교회윤리학자 스텐리 하우어워스의 논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집 (한국기독교학회, 2012), 294에서 재인용하였다.

고 말했던 부분은 중요한 실마리가 될 듯싶다.⁴¹⁾ 니버의 사회윤리가 기독교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여러 요소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치학 및 사회학의 유산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여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⁴²⁾ 넓게 보면, 니버의 관점은 스택하우스가 채택하고 있는 광범위한 소통적 신학의 선구였다. 이점에서, 니버를 굳이 자유주의 윤리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자명한 이유 또한 없어 보인다.

이러한 시론적 관측을 토대로, 비판과 반론의 관계에 있는 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의 논의에서, 자유주의 윤리에 대한 찬반논변을 살펴보면 논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들 사이의 논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⁴³⁾ 스택하우스는 하우어워스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신학 안에 내재된 자유주의 윤리의 요소, 즉 철학과 사회학을 파트너로 삼아온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편적 은총에 속하는 이성에 대한 경시는 대화의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게 되고, 정의를 비롯한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교회만을 위한 고백신학으로 제한되고 만다는 것이다.

하우어워스의 반론 역시 학문적 라이벌답게, 결코 만만치 않다. 하우어워스의 여러 반론 중에서 스택하우스의 비판을 가장 근접조준한 것은 자유주의 윤리에 관한 의견일 듯싶다. 하우어워스는 스택하우스를 계몽주의에서 파생된 자유주의 윤리에 속하는 관점이라고 규정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의 에토스를 추구하는 공공

41)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ix.

42)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니버 연구의 대가였던 고범서 박사의 강연집,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대화문화아카데미, 2007)를 참고하기 바란다.

43) 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 사이의 논쟁을 요약한 앞의 글, 김현수, '자유주의자 vs. 분파주의자 - 공공신학자 막스 스택하우스와 교회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논쟁'을 참고하도록 추천한다.

신학은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에 기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교회의 정체성 혹은 기독교적 확신이 지니고있는 특수성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사실, 기독교현실주의가 넓은 의미에서 공공신학에 속할 수 있다면, 공동체주의와는 상반되는 자유주의 윤리학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이야기라 할 수 없다. 니버가 정의와 사랑의 변증법적 관계 및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현실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에서 추구하였던 것은 큰 의의가 있다. 그를 계승한 스택하우스가 공공신학을 통해 신앙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 정치-경제적 구조 문제에 관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에 관심하고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기독교적 정책을 사회에 제공하려는 노력은 '정체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니버가 미국의 국제정책에까지 관여했던 것과 함께 스택하우스가 미국 인권운동을 통해 사회에 정책을 제시하려 했던 노력들은 사회적 실천에 관해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기독교 고유의 정체성 혹은 교회의 내적 충실성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만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기독교공동체주의는 이러한 정체성 약화의 문제에 대한 반향으로서,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임을 상기시키고 십자가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를 향한 교회의 실천을 요청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우어워스가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를 통해 교회의 교회됨을 윤리의 근간으로 상정하고 예수 내러티브에 의한 성품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한 것은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주목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정황, 즉 유일하고 보편적인 윤리를 추구하기보다 다양한 신학적 비전을 요구하는 맥락을 볼 때, 공동체주의는 일종의 관습

주의(conventionalism)로 들어가는 모험일 수 있다.⁴⁴⁾ 공동체가 각각의 고유한 규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에 대해 무비판적 순응을 요구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⁴⁵⁾ 자칫, 특정한 공동체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부족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다른 말로, 기독교공동체주의는 윤리의 보편적 객관성이 부족하고 더 넓은 사회에서의 공공성 구현의 관심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미루어 볼 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앞세워 상반되는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기독교 현실주의와 공공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을 빌어 교회 밖의 현실, 즉 공공의 영역을 향하여 나아간다. 니버가 사회정책에 주목했고 스택하우스가 공공성에 관심했던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경향이다. 반대로, 기독교 공동체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을 통해 교회 안의 문제를 자성하도록 이끈다. 하우어워스가 교회의 교회됨을 기독교윤리의 으뜸가는 책무로 상정했던 것은 이러한 관심을 상징한다. 마치, 원심력과 구심력의 상반된 관계와도 같이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 및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하우어워스의 기독교공동체주의와 대립구도에 놓여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조심스러운 제안 내지는 아젠더 하나를 제시하고 싶다. 공공성과 정체성 사이의 상보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스택하우스의 관점을 니버와 연관지어 자유주의 윤리로 분류하고 하우어워스의 공동체주의와 맞서게 하는 것은 두 관점의 상보가능성을 말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관점들이라는 사실이 자유주의-공동체주의 구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 마당에, 상보가능성을 말하

44) Stanley Grenz, *The Moral Quest*, 신원하 역, 『기독교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IVP, 2001), 276.

45) 같은 책, 277.

는 것은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다.

왜 굳이 만남을 말하려 하는가?⁴⁶⁾ 어설픈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시민적 소환에 직면한 교회의 현실, 즉 교회 안팎으로 윤리적이기를 요청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극복할 출구를 찾으려는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목한 것은 이러한 대화가능성, 상보가능성, 혹은 두 관점 모두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열어주는 접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니버와 스택하우스, 그리고 하우어워스가 아우구스티누스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를 해석의 대상이기보다 현대기독교윤리의 원천으로 읽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의 관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이 그렇다.

여기에서, 『신국론』에 나타난 두 도성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야말로 기독교사회윤리의 방향과 특징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⁷⁾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방향성을 가늠할 단초는 두 도성이 종말론적 완성의 순간까지 혼재되어 있음을 말하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지상의 가치들에 함몰되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간다. 지상의 도성은 지상에 매여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듯 착각하면서 탐욕과 만용으로 전쟁을 일삼고 심지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

46) 니버와 스택하우스의 관점, 그리고 하우어워스의 윤리가 서로 다른 길에서 기독교윤리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곧 대립인 것은 아니며 상호보완의 가능성 자체를 접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유하는 부분을 성찰하는 것은 어떨까?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관심을 단초로 삼아 대화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뜻이다.

47) Stanley Hauerwas, "How Christian Ethics Came to Be" in John Berkman and Michael Cartwright, ed. *The Hauerwas Reader*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2001), 38-39.

두 도성의 차이는 종말에 가장 크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진리 안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지상의 도성은 종말의 때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요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에게 지상의 생활을 떠나 은둔하거나 밀의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들 역시 지상의 평화를 사용하기도 하며 잠정적인 것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원한 도성에서 이루어질 평화와 삶의 완성을 바라보며, 마치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마치 밀과 가라지의 경우처럼, 혹은 알곡과 쭉정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혼재되어 있으나, 결국에는 가려질 것이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형벌로 결말이 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두 도성의 경계가 모호하고, 최후의 심판으로 두 편 모두 드러나기 전까지 혼재되어 있다.⁴⁸⁾

이렇게 혼재된 기간에,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지상의 도성을 향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큰 관심사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하나는, 지상의 도성을 향한 도덕적 관심과 섬김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을 집필할 당시, 로마는 ‘야만인들의 침략을 당하여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심지어 교회로 피신을 하기도 했고, 교회는 그들을 보호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자신들이 겪는 재난의 원인이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며 교회를 비난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혐오하는 로마를 향하여 도덕적 성찰을 촉구

48) *De civ. Dei*, I.35. Perplexae quippe sunt istae duae ciuitates in hoc saeculo inuicemque permixtae, donec ultimo iudicio dirimantur.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시대 이전에 로마가 여러 신을 섬겼을 때에도 재난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로마의 신들은 도덕에 관한 경고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외설스러운 공연예식들이 난무하면서 로마가 도덕적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반응이 없었다. 로마의 신들은 로마와 로마시민들의 도덕에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지적은,⁴⁹⁾ 신앙의 변증인 동시에 공공의 영역으로서의 로마를 향한 도덕적 관심과 문화비평을 통한 섬김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가 겪는 재난을 두고 터무니 없이 기독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즉 로마사회 스스로의 타락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마의 함락에서는 무너진 것이 돌과 목재였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도덕의 방벽과 증지였기 때문이다.⁵⁰⁾

어찌 보면, 기독교가 과연 로마사회에 해악을 끼친 종교인가를 묻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 이전의 역사를 회상시키는 과정에서 로마의 종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공신학적 관심의 단초일 수 있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변증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만일, 스택하우스에 영향을 준 니버를 넓은 의미의 공공신학자로 해석할 수 있다면,⁵¹⁾ 니버와 스택하우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공신학적 관점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자성과 자정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하우어워스에게서 볼 수 있는 교회 안의 윤리적 성숙을 말하는

49) *De civ. Dei.* II,6.

50) *De civ. Dei.* II,3. quando quidem in ruina eius lapides et ligna, in istorum autem uita omnia non murorum, sed morum munimenta atque ornamenta ceciderunt,

51) 이에 관해서는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16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8)을 참고하라.

교회윤리의 관점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내포되어 있던 셈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밀과 가라지의 혼재는 단순히 세상 안에 있는 두 도성, 즉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사이의 혼재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벌써 온갖 민족들이 교회를 채웠고, 깨끗하든 깨끗하지 못하든 사람들이 교회의 단일한 조직 속에 들어와 있다. 확실한 종말이 올 때까지는 그들이 한데 섞여 있을 것이다.⁵²⁾

특히,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는 더 이상 순교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신앙이라기보다 요즘말로, ‘복지 바우처’를 얻는 통로가 되었고,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수를 점하는 정황이 되어 버렸다. 히포 교구의 목회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로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세상’의 모습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을 듯싶다.

교회 안에도 위증자, 사기꾼, 악행을 일삼는 자, 점집을 찾는 자, 간음하는 자, 술고래, 고리대금업자, 노예상인,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너무도 많다.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다.⁵³⁾

52) *De civ. Dei.* XV.27.5. *Iam enim gentes ita ecclesiam repleuerunt, mundique et inmundi, donec certum ueniatur ad finem, ita eius unitatis quadam compagine continentur,*

53) *In Ep. Joan.,* III.9 *Quotquot enim habet Ecclesia periuros, fraudatores, maleficos, sortigelgorum inquisitores, adulteros, ebriosos, foeneratores, mangones, et omnia quae numerare non possumus; contraria sunt doctrinae Christit, contraria sunt verbo Dei:*

이 구절은 교구의 목회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이 묻어나는 부분이자 밀과 가리지의 비유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지상의 도성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지상의 도성과 그 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다.

이러한 요소들로 미루어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공공성과 정체성의 문제의식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을 뿐, 신학적 맹아로 준비되어 있었거나 혹은 배태되어 있었다. 이는 ‘상보가능성’의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암시해준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근간으로 삼는 논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⁴⁾ 아우구스티누스가 염두에 두었던 사회윤리는 로마와 로마시민들을 향한 도덕적 관심과 변증을 통한 참여, 그리고 교회가 지닌 복음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두 요소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공성과 정체성이 교회의 재발견을 통해 상호보완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교회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 공동체(*civitas peregrina*)이며, 지상의 도성을 지내는 동안 평화와 정의를 비롯한 지상의 도성이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한다. 로마로 상징화된 지상의 도성을 향하여 바른 도덕과 참된 종교를 요청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 미루어 볼 때,⁵⁵⁾ 교회는 지상의 도성을 향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이드 집단인 동시에 교회 안에

54) 필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자칫 하우어워스에 치중하여 스택하우스를 해석하려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으나, 굳이 하우어워스를 근간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윤리적 성숙과 실천과제를 모색하려는 취지였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

55) 이것은 『신국론』의 기본주제이다. 이에 관한 윤리학적 논의는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북코리아, 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들어와 있는 이질적 요소들, 즉 지상의 도성이 도전하는 교회의 정체성 혼란을 경계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만일 ‘교회’를 도덕공동체로 인식하는 이 글의 시론적 모색이 억지와 왜곡이 아님을 용인할 수 있다면, 기독교현실주의 및 공공신학이 속하는 자유주의 윤리와 기독교공동체주의 윤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안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결론지어도 무리가 되지는 않을 듯싶다. 그 각각은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동시에 상호보완의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다. 교회를 윤리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도덕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성찰해야 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언급했듯이, 니버와 스택하우스를 자유주의 윤리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하우어워스의 공동체주의 윤리와 비교하는 것 자체는 ‘끼워 맞추기’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해석들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찬반논변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신학과 교회윤리 혹은 교회의 공공성과 정체성 사이의 상호보완에 대한 단초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싶다. 도덕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재발견을 통해서 말이다.

III. 나오는 말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해석 중에서, 기독교현실주의와 기독교공동체주의에 주목한 것은 둘 사이의 대화의 단초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3의 합성물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며, 양자택일의 구도를 재론하려는 것도 아니다. 한국적 정황, 즉 교회의 윤리적 성숙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과 그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니버가 기독교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해석하고 스택하우스가 니버를 계승하면서 영역주권론 등 여러 요소들을 더하여 공공신학으로 발전시킨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니버의 해석을 반대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독교공동체주의의 연원으로 해석한 하우어워스의 관점 역시 의의가 크다. 교회윤리는 공공성에 함몰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상실하기 쉽다는 점을 일깨우고 교회됨의 가치를 강조해주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에 대한 해석들을 재론하면서 가능해진 것은 교회의 공공성과 정체성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배태되어 있었으며 공공성과 정체성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보완을 위한 단초를 지니고 있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기독교현실주의를 포함한 자유주의 윤리와 기독교공동체주의 윤리 사이의 대결구도를 정밀하게 다루기보다 상보성의 발견에 그치고 있음은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 고범서. 『사회윤리학』. 도서출판 나남, 1993.
-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 북코리아, 2014.
- 문시영. 『교회됨의 윤리』. 북코리아, 2013.
- 문시영. 「사회윤리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 니버적 접근」. 『기독교사회윤리』 제1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1999.
-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16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8.
- Grenz, Stanley., 신원하 역. 『기독교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IVP, 2001.
- Stackhouse, Max L.,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글로벌 시대의 공공신학』. 북코리아, 2013.
- Fergusson, David.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Hauerwas, Stanley. *After Christendom?*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 Hauerwas, Stanley & Wells, Samuel(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6.
- Hauerwas, Stanley.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6.
- Hauerwas, Stanley. *A Cross Shattered Church: Reclaiming the Theological Heart of Preaching*.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 Long, Jr. Edward L. *A Survey of Recent Christian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Meyer, Donald. *The Protestant Search for Political Realism 1919-1941*.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2nd ed. 1988.
- Milbank, John. *Theology & Social Theor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nd ed. 2006.
- Niebuhr, Reinhold.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3.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Stackhouse, Max L. *Ethics and the Urban Ethos: An Essay in Social Theory and Theological Reconstruction*. Boston: Beacon Press, 1972.

Stackhouse, Max L., McCann, Dennis P., and Roels, Shirley J., with Williams, Preston N., ed. *On Moral Buis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Grand Rapids: Wm. B. Eersmans, 1995.

논문투고일: 2014. 06. 16.

심사개시일: 2014. 07. 11.

게재확정일: 2014. 08. 09.

• 국 문 초 록 •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를 두고, 니버는 기독교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를, 하우어워스는 기독교공동체주의(Christian Communitarianism)를 중심으로 각각의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하우어워스의 카운터파트인 스택하우스가 니버의 계승자를 자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을 두고 니버와 스택하우스의 관점이 하우어워스의 관점과 대비되고 있는 셈이다. 자유주의 윤리와 공동체주의 윤리 사이의 논변구도가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스택하우스와 하우어워스의 관점 사이의 비교와 대화가 시론적으로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스택하우스는 니버를 계승하면서도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을 수용하여 공공신학을 전개한다. 반면, 하우어워스는 니버를 비판함으로써 스택하우스를 간접적으로 공격하면서 교회윤리를 제시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이 교회의 공공성과 정체성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에 대한 해석이 현대기독교윤리의 논쟁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론에 대한 해석에 따라 사회윤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자유주의 윤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서는 지상의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이 지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공동체주의 윤리를 표방하는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교회가 지상의 도성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정체성을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를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양자 사이의 제3의 길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길도 아닌, 상호보완성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신학과 교회윤리의 맹아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위기가 교회의 공공성과 정체성 모두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상보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현실주의, 기독교공동체주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공공신학, 교회윤리, 니버, 스택하우스, 하우어워스
